

## 현 대표 피습·전 대표 탈당...민주당 안팎 결집효과

이재명 정치역정 동정론 일고  
이낙연 신당 반대 여론 확산  
총선 입지자들 '병문안 마케팅'  
경선 일정 2달3초로 미뤄져  
총선 주자 이탈 크게 줄어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 결집 효과'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일부 의원의 탈당 예고 등으로 그동안 당권 도전을 받았던 이 대표는 이번 피습 사건으로 '정치역정 동정론'을 넘어 '민주당 결집의 구심점'으로 자리잡는 형국이다.

특히 호남 등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과 단결 분위기를 이끌면서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 경선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이재명 결집 효과가 굳어지면 신당 창당에 따른 민주당 내부의 연쇄 탈당 폭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창당에 반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총선을 앞둔 단일대오의 모습이 갖춰져 가고 있다.

8일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으로 한동안 중단된 인제 영입 행사를 12일 만에 재개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병원에서 치료중인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본인인 위원장인 인제영입위원회나 공천관리위원회 활동이 중단된 것에 부담을 느끼고 조기 당무 복귀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중단된 인제 영입에 속도를 내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도 지난 5일 완료하면서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공관위원장에 임명해 고려대 명예교수, 공관위 부위원장은 조정식 사무총장, 간사에는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각각 선임됐지만 15명의 공관위원의 명단은 그동안 발표하지 못했다.

호남지역 한 국회의원은 "인제 영입과 공관위 구성이 정상화되는 등 이 대표 피습 이후에도 총선 작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8일 기준 79도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101.2도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좀처럼 온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 관련기사 7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업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내 결속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이 대표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발 없이 총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피습 후 가장 큰 민주당 내 변화는 '당권의 불안정한 요소'들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점이다. 친명계 핵심 내부에서도 "1월께 이 대표가 당권을 일부 내려놓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했지만 피습 이후에는 이런 변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 총선을 앞두고 당 일각에서 '대표직 사퇴와 통합비대위 요구'가 잇따라 친명 내부에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계파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하지만 피습 사건 이후에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운영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다"는 게 당 안팎의 분위기다.

이 대표의 지지층이 많은 호남에서도 '이재명 결

집 효과'는 눈에 띈다. 대다수 호남 민주당 경선 도전자들은 앞다퉈 이 대표가 임원한 병원을 방문하는 등 '이재명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효과'를 보지 못한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도 여론조사에 사용할 직책에서 아예 현역 국회의원을 사제한 뒤 당직을 대신 쓰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창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갈망했던 민주주의의 모습은 보수세력과 박넌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민주진영을 갈라치는 것도 결코 아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내부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며 신당창당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선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커지면서,

이 대표의 당 장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가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민주당 경선은 2월 말-3월 초로 미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추진하는 신당도 같은 기간 총선 후보군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 총선 주자들의 이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셈이다. 신당의 인적 구성 일정과 민주당 경선 일정이 시간상 맞물리면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잠정적 신당 입당 정치인'의 수가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권한이 탄탄해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가 피습 이후 빠르게 당을 장악하면서 비주류가 전혀 숨을 쉴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창간 72주년 엠블럼



매일 새로운 태양은 떠오르며, 현재는 미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간다. 밝은 빛을 뿜어내는 일출 장면을 형상화해 72를 담았다.

###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 광주 유치 확정

세계양궁연맹이 2025 세계 양궁선수권대회에 이어 '세계 장애인양궁대회' 개최지로 광주를 확정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계양궁연맹은 최근 2025 세계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광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세계양궁연맹은 지난해 말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정기 집행이사회를 열어 광주, 중국 베이징 등 유치 신청 도시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가졌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 준비 상황, 국제 스포츠대회 준비 경험 등이 높이 평가됐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양궁선수권대회와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도시는 광주가 역대 세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2025년 9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 후 7일간 광주 국제양궁장,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리커브, 컴파운드, W1(중증 장애), 시각장애 등 4개 종목에 50여 개국, 400여 명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체육진흥과 소속 '국제 스포츠 지원팀'을 '양궁대회 준비팀'으로 개편했으며 이번 정기 인사에서는 세계양궁대회 지원단(2팀 12명)을 문화체육실에 확대·신설해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광주가 결정된 것은 150만 광주시민의 염원과 7만여 광주시 등목장애인들의 애정이 이뤄낸 결과물"이라면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철저히 준비해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식용목적 도살 최대 징역 3년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증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

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연합뉴스

무등산 정상개방  
Y프로젝트  
명품 품앗호수 조성  
복합쇼핑몰 3중세트  
동광주~광산IC 확장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전국 첫 공공심아어린이병원  
동물보호소 10년 민원 해결  
지하철 2호선 2단계  
군공항 이전  
광주다용 통합돌봄

2024  
변화의 밑그림을 완성한 광주  
살기·즐기기 기업하기 좋은 광주  
다양한 기획도시 광주